



탐방

건설화학공업(주)

자율적인 분위기 양질의 도로생산 자부심

개방적인 회사의 새로운 이미지 심기에 주력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숨통을 이어주는 공기와 서로의 마음을 읽게 해주는 언어와 밤길의 눈이 되어 주는 전기, 그리고 아낌없이 펄펄 쓰는 물 등 그 중요성에 비해 무심히 흘러 지나가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업무를 보는 사무실, 그리고 편히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미관상의 아름다움과 매일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도로 상의 중요한 표시를 담당하고 있는 페인트 즉 도로 역시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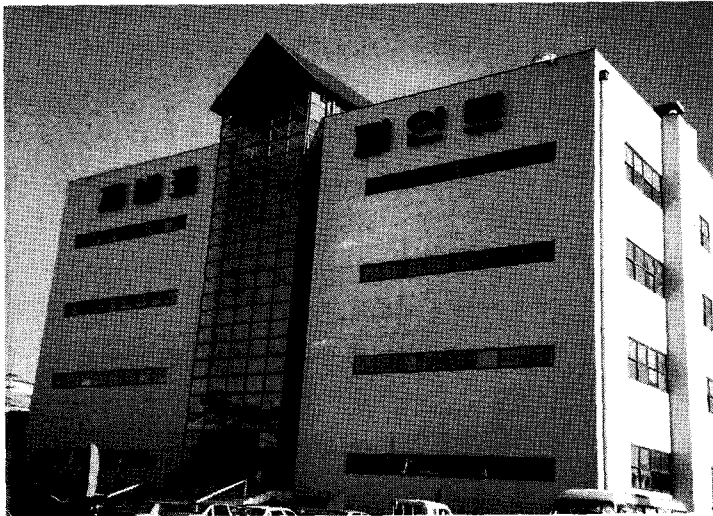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더욱 다양해 지고 있는 도로업계가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에 따른

부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경제적 성장에 일조하면서 발전해 온 하나의 주도적인 산업분야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며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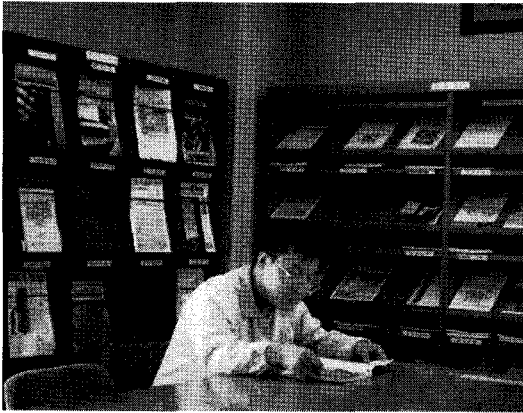
발전을 거듭해온 국내 페인트업계를 돌아보면 흔히 △△표 페인트라고 명칭되어지는 몇몇 큰 업체들이 생각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동안 도로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는 제비표페인트를 방문했다.

많은 이들이 제비표페인트하면 '아~' 하는 감탄사를 터뜨리겠지만 건설화학공업(주)이라고 하면 아마도 고개를 가우뚱거릴 것이다.

비록 소비자들에게는 낯설지만 도로업계의 튼튼한 버팀목인 건설화학공업(주)는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강남화성과 울산에 위치한 선박회사인 (주)강남, 접착제 생산업체인 (주)보광, 자동차용 도료를 생산하고 있는 (주)KDK 등과 함께 강남그룹의 계열사를 이루고 있다. 95년 매출액이 5조 5천1백4십억인 강남그룹은 울



▲ 건설화학공업(주) 기술연구소 전경



▲ 기술정보실 내 외국서적 정보실.

96년의 매출목표액에 차분히 다가서고 있는 내 실있는 기업이다.

강남그룹의 모체로 1952년 7월 16일 설립된 건설화학공업(주)는 현재 안양공장 및 기술연구소, 부산의 본사 및 공장, 서울사무소, 도쿄사무소 등 각지에서 양질의 페인트 생산에 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경남 함안시에 칠서공장을 착공, 97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사업확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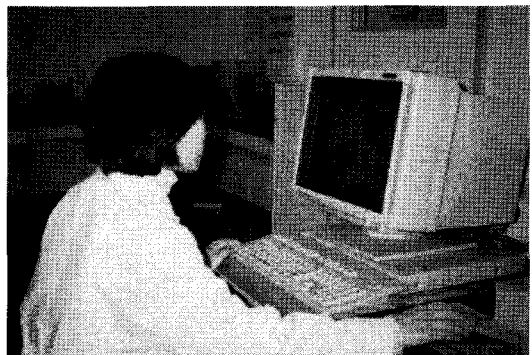
건설화학공업(주)의 브레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연구소는 생산품목 및 도료별 특성에 따라 부서체제 안에 팀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 중 연구개발부에는 기기분석, 순수 개발, 기능성 도료 담당팀 등이 있고 제1공업도료부는 가전공업 도료를, 제2공업도료부는 목공, 건축용 도료를 담당하고 있다.

도료에 있어 색상의 선별은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 이는 CCM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CCM실은 CCM입력운영, CCM배합제공, 컬러디자인연구, 건축물 색채 관리, 색상 불만대응 프로그램 연구, 신규제조기술 배합 입력, 공업용 도료 사전조색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제비표 페인

트의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을 연출하고 있다.

연구소 전반적인 행정과 연구소 직원에 대한 병역관련 특례사항,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기획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정보실의 경우 동경사무소를 통해 일본의 자료들을 비치하고 영문 잡지는 직접 받아 직원들의 자료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데 기술정보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찬봉 계장은 “저희 회사의 전체적인 규모에 비하면 그리 크지는 않지만 현재 폭넓은 자료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자료 확충에 힘써 기술정보실의 역할확대를 꾀할 생각입니다”라며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기술정보실의 전망을 이야기 했다. 이처럼 실무적인 생산분야 뿐만 아니라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과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건설화학공업(주)는 자체적인 기술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사내 과장급 이상을 강사로 기술연구소 내부적으로 2주에 한번씩 주로 연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부적인 세미나는 QM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모든 도료 관련 교육에 대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사원들의 자질향상에 적극적인 건설화학공업(주)는 750명의 사



▲ CCM실에서는 점탄시설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 도료를 배합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사내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조를 중심으로 축구, 테니스, 족구, 볼링 등 일반적인 모임과 신우회라는 크리스찬 모임이 있어 사원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운영, 친목도모의 형식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페인트가 수성용으로 전환되고 있기는 하지만 도료자체가 유해하므로 급격히 대두되어 온 환경문제와 무관할 수 없는데 폐수처리 시설은 물론 유독한 냄새가 가득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등에 주력하는 모습은 물론 건설화학공업(주) 안양공장을 들어서면서 바로 옆으로 흐르는 하천 입구에 써있는 '이 하천은 건설화학공업(주)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에서 환경에 대한 그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었다.

이미 ISO 9001을 획득한 바 있고 현재 ISO 14000 인증 획득에 대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건설화학공업(주)는 강제적인 규약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건설화학공업(주) 스스로의 움

직임으로 환경문제 및 작업장 환경 개선에 그 잦은 발걸음을 디디고 있다.

“고객의 요구를 중하게 들어주자”라는 창업 정신에 따라 모든 생산제품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보증함을 품질방침으로 하고 있는 건설화학공업(주)은 그 최종 목표로 세계적인 도료 공급업체로 성장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의 첫 디딤으로 (주)대우와 합작해 베트남에 도료공장을 설립할 예정인 건설화학공업(주)은 이번 합작진출을 통해 내수에만 치중해 있는 매출현황을 수출중심으로 바뀌가면서 세계적인 도료공급업체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이와 더불어 신제품개발 등 이슈가 있으면 일간지나 관련 매체를 통해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해 폐쇄적이던 건설화학공업(주)의 이미지를 개방적인 이미지로 개선해 갈 예정이다.

40여년전 국내 도료업계의 장을 연 건설화학공업(주)는 그간 우수한 제품생산을 통해 우리의 주거문화와 산업발전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한국도료업계의 역사를 일구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자신감과 경험은 중요하다. 그 기본적인 중요함의 무게를 실은 40여년간 축적된 기술과 양질의 도료를 생산한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화학공업(주)를 탐방하면서 무엇보다 자유롭지만 진지한 업무분위기와 화기에애한 사원들간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더해져 발전의 밑거름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건설화학공업(주)의 밝은 미래가 바로 내일로 다가와 있다는 그들의 벽찬 자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

윤지은 기자